

취업이라는 삶의 한 여정을 지나며



이소영
기사심의팀

연말이 되면 함께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 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비곤 한다. 그렇게 들뜬 사람들 사이로 빛나는 초형물들 앞을 걷고 있노라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하기도 했다.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닌 '취업준비생'이라는 애매한 신분 때문이었을 것이다.

먼저 취업한 선배들로부터 아직 어린 나이이니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라는 값진 조언을 듣기도 했지만, 불안정한 미래 앞에서 그런 조언을 따르기는 쉽지 않았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공백기만 느끼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항상 조금한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나 혼자만이 느낀 감정은 아닐 것이다. 갈수록 얼어붙어가는 취업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모두 비슷한 고민과 불안감을 안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준비과정에 모범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중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상반기, 하반기 채용까지 모두 끝나고 나면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채용 분위기 또한 취업준비생들을 힘들게 한다. '고스펙화'되어 가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최소한 필기나 면접의 기회라도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 아래 몇몇 기업은 이른바 스펙초월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입사지원서에서 스펙이라 할 수 있는 학점 및 어학성적과 자격증 등의 기재란을 없애고 기존의 서류 전형 대신 새로운 전형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특정 주제에 대해 글을 써서 제출하는 과정을 몇 차례 거치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지원자들 간 상호평가와 인사담당자 등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필기나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형 방식에 대비해 준비하던 이들에게 갑작스런 스펙초월 채용은 오히려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평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에도 오랫동안 고민하는 이라면 정해진 시간 내에 비교적 장문의 글을 쓰고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기존의 서류 전형보다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준비를 할 당시 이러한 스펙초월 채용 이외에도 채용제도나 방식의 변화가 예고될 때가 종종 있었다.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았던 이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럴 때면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그에 대해 얘기하며 서로의 걱정을 공유하고 위로해주곤 했다. 요즘 그 친구들이 하나, 둘 합격 소식을 알려올 때면 같이 불안해하고 고민하던 시기가 생각나 감회가 새롭다.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공부에 매진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취업에 빨리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서류, 때로는 필기, 또 때로는 최종의 문턱에서 떨어지며 취업 준비시기를 생각보다 오래 이어가기도 하고, 이제 막 취업준비를 시작하고 시험 삼아 원서를 넣었다는 이들이 단번에 취업에 성공하기도 한다. 이를 보면 취업에 있어 물론 개인의 노력과 능력 등도 주요한 요소이겠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밑바탕에 쌓아두고 운까지 더해져야 비로소 합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러갈 때면 과연 그런 행운이 오는 날이 있을지 의심을 품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운이라는 것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스스로를 믿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이에게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날씨가 쌀쌀한 요즘 홀로 거리를 걷다 보면 다시금 과거의 쓸쓸한 감정과 스스로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취업준비생들이 조금은 덜 불안해하고, 조금 더 자신을 믿으며 취업이라는 여정을 잘 마치기를 바란다.

